

# 지갑 닫고 비용 늘고...소상공인 “새해에도 한숨만”

### 소비 부진·고금리·고물가 지속...대출 상환 부담까지 광주·전남 소상공인 경기전망 지수 4개월 연속 하락

“인건비와 재료값, 공공요금은 올랐는데 지갑을 여는 시민들이 없어 걱정입니다...”  
곡성군 곡성읍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정어진(30)씨는 새해가 됐지만 설레고 희망찬 생각보단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2022년 11월은 행권 대출을 받아 작은 카페를 개업한 정씨는 해가 바뀌면서 고민이 늘었으면 늘었지 가게 운영과 관련해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당장 올해부터 작년보다 인상된 최저시급이 정씨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씨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달부터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직원 한 명당 월급이 최소 20만원씩은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재료값 인상도 정씨를 우울하게 만들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끊임없이 오르면 물가가 올해 역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 3분기 원두와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재료값이 5% 인상됐지만, 손해는 보더라도 폐업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4분기부터는 재료값은 10%, 우유류는 15%가량 인상돼 타격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폐업만은 막아보고자 판매가를 200~300원 가량 올려보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가격이나 손님이 적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씨는 “좁은 동네에서 손님 유치 경쟁도 어려운 실정에 가격 인상으로 단골마저 잃을까 고민이다”

며 “대출금 상환도 만만치 않고,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 우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는 새해 벽두부터 깊어지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1월 경기전망지수(BSI)는 각각 84.1, 71.1로 전월인 89.4(광주), 84.3(전남)보다 하락했다. 무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이진 하락세다.  
전국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79.5)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

(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박모(여·60)씨는 “코로나19때도 하루 평균 20명이었던 손님이 최근들어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불경기에 사치품은 물론 옷을 사는 고객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특히 높은 금리로 빌린 대출금을 갚기 힘들어 조만간 폐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이미 대출받은 돈만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다”라며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지만 올해를 넘기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은 날로 커지면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296억원이 지급됐는데, 전년 같은기간(235억원)보다 26% 늘어났다. 지급 건수도 2262건에서 2815건으로 553건 증

가했다.  
전남 역시 지급액은 19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50% 늘었고, 지급 건수는 43%(855건) 늘어난 281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갚아주는 사례도 늘어났다.  
지난해 광주의 1~11월 대우변제건수는 289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1068건) 보다 무려 171.35%나 증가했고, 대우변제 금액 또한 2022년 147억원에서 2023년 383억원으로 160.54% 증가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658건(2022년)에서 2023년 2460건으로 늘었고, 대우변제 금액 또한 111억원에서 364억원(227.93%)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역 경제계 전문가는 “당분간 고성장은 커녕 저금리도 어려운 상황이니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한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Wa! 광주 와뱅크가 1년치 대출이자 쓴다

### 광주은행, 2월 29일까지 비대면 추첨 통해 첫 달 이자 지원 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최대 1년 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Wa! 광주 와뱅크가 대출이자 쓴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비대면으로 ‘KJB햇살론뱅크’를 실행하고, 추첨 전날까지 연체 이력 없이 이자를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연간 또는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이자 지원 추첨은 오는 3월15일 1차 추첨과 4월15일 2차 추첨을 통해 각 100명씩 총 200명에게 첫 달 이자를 지원하며, 11월 29일에는 1명을 선정해 1년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 1차 추첨 대상자는 2024년 1월 대출 실행 고객이며, 2차 추첨 대상자는 2024년 2월 대출 실행 고객 대상이다.  
각 이벤트 중복 당첨은 불가하고 추첨 및 지급 조건은 ▲KJB햇살론뱅크(비대면) 실행 ▲성실 상환 고객(1일 이상 연체 발생 시 대상 제외) ▲마케팅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이자 추첨 및 당첨 후 지급일 전 해당 상품



전액 상환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에서 문의 가능하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광주은행의 새로운 스마트뱅킹인 ‘광주Wa뱅크’ 출시와 더

불어 최근 고금리 시기에 고객님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고객님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광주경제자총협회 양진석(사진) 회장이 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회원이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회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 권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양 회장은 “광주경총은 43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617개 사의 회원 증가와 100억원이 넘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역 청년과 중장년 4019명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적 경제 불안 요인이 내재돼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만족도 상승을 위해 상시 회원기업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회원사 경영에 대해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끝으로 “광주경총이 지역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경제와 회원기업에 대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국민·기초연금 수령액 3.6% 인상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

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 농협 광주본부 2024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해 “2024년 윤리경영 및 3행3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결의대회에서 광주본부 임직원들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3행(정렴·소통·배려) 3무(사고·갑질·성희롱)를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범농협 광주본부 임직원 모두

가 농협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3행3무 실천운동’에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또한 농협중앙회장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농협법 등 법률이 규정하는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시장개척 참여 접수

11일까지 모집  
전남도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시장개척 수출 상담 참가 기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출상담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진행된다. 세종, 경북, 충남, 제주 등

다른 지자체와 통합 운영해 풍부한 네트워크를 형성,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소재 중소기업 중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타 사도 제품만 유통하는 기업이나 국제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은 제외된다.  
참가를 바라는 기한 내 전남도 수출정보망(https://www.j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7.31(-62.50)
↓ 코스닥	871.57(-7.36)
↑ 금리(국고채 3년)	3.278(+0.038)
↑ 환율(USD)	1304.80(+4.40)



## 삼성전자, 빛 반사 최소 OLED 게이밍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서 OLED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신제품은 32형·4K UHD 해상도·최대 240Hz 주사율의 ‘오디세이 OLED G8(G80SD)’, 27형·QHD 해상도·최대 360Hz 주사율의 ‘오디세이 OLED G6(G60SD)’, 기존 모델에 신규 기능을 탑재한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G9(G95SD)’ 등 총 3종이다.  
신제품 3종에는 빛 반사를 최소화하는 OLED 글래어 프리(Glare Free) 기술이 적용돼 별도의 차광 후드 없이도 일관된 수준의 밝기와 색상으로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중 오디세이 OLED G9(G95SD)과 G8(G80SD)은 ‘멀티 컨트롤’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두 제품에는 ‘스마트싱스 허브’가 내장돼 별도의 허브 없이도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삼성 타이젠 OS가 탑재돼 다양한 OTT를 즐길 수 있으며, ‘삼성 게이밍 허브’가 내장돼 별도의 콘솔 기기 연결이나 다운로드 없이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다.  
G8과 G6는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이는 16:9 화면비로, 후면에 2024년형 신규 ‘코어 라이팅 플러스’를 적용한다. 이는 후면 라이팅 구조를 기존보다 4배 이상 슬림화해 최박부 3.9mm의 초슬림 메탈 베젤과 조화를 이룬다.  
새롭게 적용된 슬림 메탈 스탠드는 스탠드와 받침대를 어떤 도구 없이도 설치 및 분해가 가능한 ‘툴리스’ 결합 구조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